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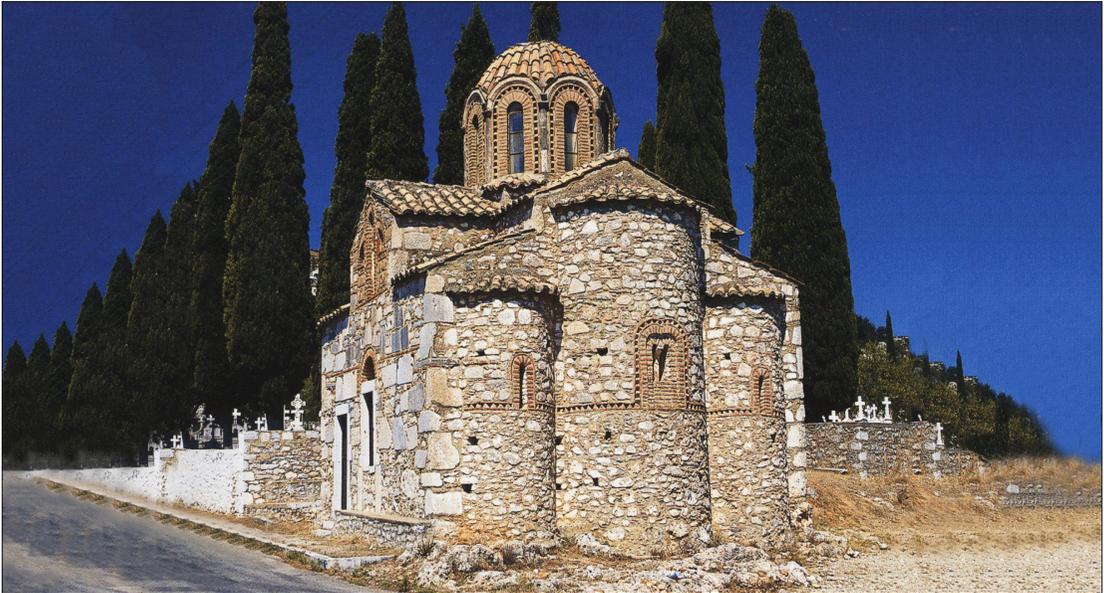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제2423호

2023.6.4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게라키에는 12세기에 지어진 성 아타나시오스 성당(사진)이 자리 잡고 있다. 돔을 얹은 비잔틴 바실리카 양식이며, 성당 내부에는 정교하게 그려진 성화가 보존되어 있다. 성당 주변에 조성된 묘지가 보인다.

부활 후 제8주일 (성령 강림 주일 • 오순절)

성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의 누이)
축일 조과복음 : 요한 20,19~23
(조과 부활복음 9와 동일)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2 응송 265
- 오순절 찬양송 265
- 오순절 입당송 265
- 오순절 시기송 265
- 삼성송 대신 '그리스도 인하여' ... 85
- 사도경 : 사행 2,1~11 265
- 복음경 : 요한 7,37~52; 8,12 ... 106
- 오순절 영성체성혈송 266
- '우리가 참 빛' 대신 '오순절 찬양송'

* 성령 강림 의식
오순절 의식서 88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

오순절과 성령의 오심을 경축합니다. 그로 인해 약속이 성취되고, 희망이 실현되었도다. 위엄이 충만한 경배하을 신비여! 우리도 외치나니,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주여, 당신은 이방인들의 언어로, 제자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언어들로 그들은 당신이 우리 영혼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이시며, 불멸하는 말씀이심을 선포하였나이다.

모든 은총은 성령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예언의 원천이시고, 사제들을 교양하며, 문맹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소박한 어부들을 신학자로 변화시키시고, 함께 모인 교회들을 굳세게 하시나이다. 성부 성자와 동일 본질을 가지시고, 그분들과 같은 보좌를 공유하시는 주님이신 위로자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오순절 전례서'에서

영혼을 위한 물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 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창세기 1,1-2)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물은 땅과 함께 있었듯이, 주님의 피조물인 생명체도 생명을 갖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물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노아가 역사하던 시대에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하시면서 의롭고 흠 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 홍수로부터 구원하시고 다른 모든 이들은 물로 쓸어버리셨다. 한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된 땅에 도착하기 위해 보냈던 광야에서 물은 사람들의 생명이었기에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고, 마라에서는 써서 먹지 못하는 물에 나무를 던져 단물로 바꾸어 백성들이 마시게 하는 기적을 주셨다.

이와 같이 물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물질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려주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대낮에 사마

리아 여인이 물을 길으러 우물가로 왔다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요청하시자 그 여인은 이 광경이 매우 낯설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간주하여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신 까닭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막을 지나며 물이 없고 불평을 심하게 하자 모세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호렙의 바위를 치자 물이 터져 나와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순절에 생명의 물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영혼이 목마름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세례 성사 때 물로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났고, 성수물을 마시면서 마음과 육신의 치유를 받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요한 7,37-39)

“진정으로 믿는다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될 수 있네.”

외젠 이오네스코(루마니아 태생 프랑스 극작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아주 오래전, 유명한 프랑스의 극작가 이오네스코는 생애 처음으로 그리스의 아토스 성산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뒤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는 ‘파리 매치(Paris Match)’라는 잡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아토스 성산을 방문했을 때 겪었던 한 가지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루마니아의 정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프랑스 파리에서 살았습니다. 스물다섯 살이 되었을 때(1934년), 당시 세속적인 시대의 파리에 살던 순수한 젊은이로서 그리스의 아토스 성산을 찾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곳이 정교회에서 지니고 있었고 지금도 분명히 지니고 있는 영적인 금욕수련의 장소라는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고백성사를 해야겠다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뭇거리기 없이 나는 수도사제인 한 영적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고백을 했을까요?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의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죄였습니다. 수도사제는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말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래서 저는, ‘네, 네, 신부님,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세례를 받은 정교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안목이 높은 영적 아버지는, ‘보게나 젊은이,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며 온 세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가?’하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난생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아주 정직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 물음 앞에 세워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믿느냐고 묻지 않았고, 창조주이신 하느님, 곧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며, 나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분은, ‘만일 자네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땐 모든 것이 바르게 될 수 있다네.’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이오네스코가 회심하게 된 원인이었으며, 그는 나이가 들기까지 이름난 극작가이자 경건하고 깊은 신앙심을 지닌 정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거룩한 영적 원로가 들려준 말, 곧 ‘만일 자네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땐 모든 것이 바르게 될 수 있다네.’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추상적인 이론이나 공허한 말이 아니며, 도리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고 구세주이신 특정한 인격, 곧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식적으로 마음을 돌이켜 끊임 없이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몸된 교회로 되돌아간 결과입니다.

주간 예배 안내

* 6월 5일(월)

성령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소티리오스 대주교

1주기 추도 예배 안내

오는 6월 10일(토)에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소티
리오스 대주교님 안식 1주기
추도 예배가 거행됩니다.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
당에 신청해주세요.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추도식



소식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오늘 예배 후, 세계 음식 축제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 오순절 주간 금식 해제

이번 주간은 오순절 축일 경축 기간으로 수, 금요일 금식이
해제됩니다.

■ 인천 성당 결혼 성사

5월 21일(주일)에 그레고리 칠슨-세라피나 이경은 부부,
28일(주일)에 가브리엘 미하일로비치-김 타티아나 발레리에
브나 부부의 결혼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서울 성당 장년회, 청년회 가평 수도원 봉사

27일(토)-29일(월) 연휴에 장년회와 청년회에서 총 18명이
수도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곳은 날씨에도 울타리 제
거, 묘소 앞 데크 설치, 정원 제초, 실내외 청소 등 많은 수고
를 해준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향한 희망을 잃지 않으면...

성인의 가르침

에프렘 성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한 형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이 들어 무
척 고생하고 있었는데 다른 형제 수도자들은 그에게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했으므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건강을 주실 것을 하느님께 간구했습니다.

‘나의 주님, 저의 육체적인 병이 제 영혼의 치유를 위해 주어진 것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제
가 다른 형제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비로우신 이시여, 저의 영혼과 육체를 낮게 해주소서.’

그는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평도 없이 고된 일을 묵묵히 해나갔
습니다. 당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경건한 수도자를 지켜보신 하느님께서서는 그가 다
시 건강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